

# SPACE

566  
201501

Feature

**A NEW BLUEPRINT OF SEOUL,  
OR YET ANOTHER PROPAGANDA ATTEMPT?**

Frame

**AN ARCHITECT'S IMMERSION IN PARADOXES  
AND BOUNDARIES: KIM SEUNGHOY**

空間

##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김수자 | Kimsooja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Steel, custom acrylic panel, laminated polymer film, mirror, 14m (height) × 1.3m (diameter), 2014



**Artist:** Kimsooja **Curator:** Stephanie Owens (director, CCA; professor of multi disciplinary studies, art & architecture) **Collaborator:** Jaeho Chong [architect], Ulrich Wiesner (professor,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and Hiroaki Sai (Wiesner Group researcher,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Ferdinand Kohle (graduate student, Chemistry and Chemical Biology), Erik P. Eshelman [Architectural Engineering] **Location:** Cornell University, Arts Quad, Ithaca, NY **Diameter:** 1.3m **Height:** 14m **Structure:** steel frame **Structural engineer:** Erik P. Eshelman, Jaeho Chong **Material:** steel, custom acrylic panel, laminated polymer film, mirror **Material Studies:** Ulrich Wiesner, Hiroaki Sai, Ferdinand Kohle **Construction:** Mulan Manufacturing, Cornell University Facilities Engineering **Design period:** Apr. – June, 2014 **Construction period:** Jul. – Aug, 2014 **Completion:** Sep. 12, 2014 **Commission:** Cornell Council for the Arts materials provided by Kimsooja Studio | photographed by Jaeho Chong (unless otherwise indicated), courtesy of Cornell Council for the Arts and Kukje Gallery, © Kimsooja Studio

## 시선의 역학

### 정재호

한 사람이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한다. 오고 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정갈한 부동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다. 김수자의 퍼포먼스 비디오 작업인 '바늘 여인 (1999~2009)'에서 하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척도가 된다. 작가의 몸은 지나가는 군중과 겹쳐지면서 우리의 시선 안으로 들어왔다가 벗어나기를 반복한다.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 인물에 전이돼 있음을 느끼고 작가의 시선을 빌어 시간 앞에 섰었던 자기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비슷한 제목의 그녀의 최근작은 이전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건축적 형태를 통해 관람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코넬 대학교의 첫 비엔날레에서 발표될 이 작업을 위해 김수자, 나노 과학자 올리 와이즈너, 건축가인 필자가 긴밀히 협업했다. 대학교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아트 쿼드에 투명한 아크릴 패널에 감싸인 높이 14m, 지름 1.3m의 강철 구조물이 설치되었다. 무지갯빛의 나노 폴리머로 코팅된 각각의 아크릴 패널은 밝은 빛 아래서 파빌리온 전체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색을 입힌다. 와이즈너 그룹의 히로아키 사이, 페르디난트 코히 나노 입자 배열 방식을 설계해 만들어 낸 '블록 폴리머'는 빛의 다양한 파장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굴절시킨다. 파빌리온 내부의 거울로 만들어진 원형 바닥은 하늘을 땅으로 반사시켜 양자를 무한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코넬대학교는 장소특정적 예술에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69년 윌라비 샤프가 큐레이팅한 '대지의 예술(Earth Art)' 프로젝트에서 한스 하케, 리처드 롱, 로버트 스미슨, 데니스 오펜하임, 커터 우커가 캠퍼스에 새롭게 설치한 작업들이 잘 알려져

있다. 이 작가들은 대지 자체를 하나의 캔버스, 그리고 작업의 질료로써 받아들였다. 김수자가 지구를 하나의 '레디유즈드(readysused)' 오브제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뒤샹의 '레디메이드(readymade)', 피에로 만조니의 1961년 작 '세계의 주춧돌(Socle du Monde)'와 유사하다. 뒤샹의 태도에 더 가깝게, 김수자의 작업은 시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경배를 경계한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사물이나 현상, 비물질적인 것들을 통해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 낸다. 하지만 두 작가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오브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김수자에게 바늘은 "하나의 매개체, 신비, 현실, 자용동체, 하나의 지표와 순간, 그리고 하나의 선(Zen)"이다. 이것은 이성적 지각이라기보다는 자각과 통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제르마노 켈란트키가 말하는 '아르데 포베라'의 정신과 더욱 유사하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정 사실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려는 의지"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브제를 '만드는 것'을 거부해 온 작가로 하여금 14m의 '조각'을 임태하도록 이끌었을까? 협업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김수자는 무지갯빛 물질을 담고 있는 작은 유리병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구조 색'으로 알려져 있고 올리 와이즈너가 '블록 혼성 중합체'로 구현한 이 물질은 화학적으로 단일 구조의 단위체를 발전시킨 것으로 분자의 연속적인 묶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빛을 굴절시키는 속성은 나비의 날개나 딱정벌레의 겹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며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실로 짜여진 직물처럼 보인다. 천을 통해 삶과 세계의 진실을 탐구해 왔던 김수자의 한결 같은 관심사가 여기서 또 다른 스케일의 현실을 찾은 것이다. 이 길은 나노과학의 현상과 그녀의 예술적 실험 사이의 깊은 일관성이 그녀가 인간의 감각과 지각 이상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현상을 작품화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업을 경험하며 새로운 현실을 마주한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지속적인 탐구의 태도이다. 그녀는 '나노기술은 천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외향적, 거시적 관점과 상반되는 내향적, 미시적 방향성을 갖는 표현 방식'이라고 말한다. 전자는 하나의 소실점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에리하게 해주고 내부의 공간이 최대한 소거될 만큼 공간을 무한으로 나누고 재정의한다. 동시에 후자는 기하학적 상상력을 넘어 외부공간의 한계를 확대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기하학을 통해 공간의 내부성을 유지하는 건축은 인간의 경험으로 가능하기에 너무 큰 공간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케일의 틀을 제공한다. 완성된 파빌리온의 형태가 조각물처럼 보이지만, 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도출된 것일 뿐이다. 바늘이라는 형태는 건축 역사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수 세기 동안 인간과 우주 사이에서 종교적인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 '클레오파트라의 바늘'로도 알려진 이 기념물은 이집트 신화에서 신성한 구조물로 등장하고 뜨고 지는

해를 상징한다. 이는 탄생과 완성의 은유로써 태양의 신 '라(Ra)'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인간은 바늘의 형태를 통해 그와 우주를 잇는 매개로서의 빛과 시간을 드러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수자의 바늘이 갖는 시각적 현상은 나노물질이나 건축구조, 또는 예술적 의도를 통해서 구현되기보다는 미묘한 빛의 변화에서 인지할 수 있는 끊임없는 천체의 운동 안에서 이루어진다. 파빌리온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분자구조는 물리적으로 빛을 굴절시켜 가시적인 파장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표면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현상은 김수자의 퍼포먼스 비디오 작품에서 보듯이 서 있는 작가의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과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바늘'은 대지와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달리 우리 몸과는 평행한 대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캔버스 표면의 붓질로 이루어졌던 의식의 흐름은 오랜 기간 김수자의 작업에서 개념화되어 왔다. 붓에서 바늘로, 바늘은 몸으로, 몸은 시선으로, 결국 빛의 공간으로서의 시선만 남을 뿐이다. 이로써 우리의 시선은 거리와, 시간, 물질, 그리고 천체에 내재한 기억을 잇는 하나의 바늘길 행위로 전환된다. 바늘 끝이 닿는 찰나와 영원의 교차점을 끊임없이 오가며.



Under a raking light, each of the panels transforms the entire pavilion into a radiant spectrum of colour.

## An Architecture of Gaze

Jaeho Chong

A silent figure stands with its back facing the viewer, poised motionless against the ebb and flow of the anonymous crowd, unsheltered and without a want. Standing in front of *A Needle Woman*, a performance/video work (1999 – 2009) by the acclaimed artist Kimsooja, we see a body that, without doing anything, becomes a measure of time and space. As the artist's body weaves ceaselessly through the crowd, it shifts in and out of our field of vision. For a fleeting moment we experience our body transposed into hers, and through the borrowed gaze of the artist we confront our own impermanence in the face of time.

Her most recent work, similarly titled,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carries this experience



This project is infinitely dividing and redefining space almost to the point of eliminating interiority.

photographed by Ferdinand Kohle



The interior of the floor is mirrored, doubling and extending the sky into the ground.

forward in a new form of practice. It is the result of a close collaboration between Kimsooja, the nanoscientist Ulrich Wiesner, and myself, an architect, on the occasion of the Cornell University's inaugural art biennial organized by Stephanie Owens, director of the Cornell Council for the Arts. Situated at the heart of the university's Arts Quad, the 14m high 1.3m diameter custom-fabricated steel structure is fleshed out with transparent acrylic panels that have been individually coated in iridescent nanopolymer. Under a raking light, each of these panels transforms the entire pavilion into a radiant spectrum of colour as the molecularly engineered 'block copolymer,' produced by Hiroaki Sai and Ferdinand Kohle from the Wiesner Group, refracting various wavelengths of light dependent on the angle from which it is viewed. The interior of the floor is mirrored, doubling and extending the sky into the ground.

Cornell has a long history of commissioning site-specific art works. Perhaps those best known came out of the seminal 1969 Earth Art show curated by Willoughby Sharp, which brought together a group of young artists, including Hans Haacke, Richard Long, Robert Smithson, Dennis Oppenheim, and Günther Uecker, to produce new works on campus. Many of these artists treated the earth itself as a canvas and as sculptural material, just as today Kimsooja sees the earth as a 'readyused' object — an idea akin to Duchamp's readymades

or to Piero Manzoni's 1961 *Socle Du Monde*. In fact, much like Duchamp's attitude, Kimsooja's work resists human desire and adoration for visual pleasure, never making anything, but creating new thoughts for any given object or phenomenon. However, drawing such a formal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tists in using found objects has its limits.. For instance, the idea of the needle employed by Kimsooja, in her own words, is 'a medium, a mystery, a reality, a hermaphrodite, a barometer, a moment, and Zen', which is much closer to a state of empathy than to a rationale of apathy. It echoes the spirit of Arte Povera, whose attitude, according to Germano Celant, is 'intent upon retrieving the factual significance of the emerging meaning of human life'.

What then, led an artist who refuses to 'make' objects to conceive a 46-foot tall 'sculpture'? At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collaborators, Kimsooja was presented with a small vial containing an iridescent substance. Generally known as 'structural colour', and characterized by Ulrich Wiesner as 'block copolymer', this chemically grown chain of monomers produce a continuous banding of molecules with light-refracting qualities similar to those found on the wings of butterflies or the shells of beetles. When examined under an electron microscope, it appears as a striated fabric. Needless to say, Kimsooja's sustained interest in used fabrics as a tableau of life finds another scale of reality here. Such a





'Block copolymer,' produced by Hiroaki Sai and Ferdinand Kohle from the Wiesner Group, refracting various wavelengths of light dependent on the angle from which it is viewed.

profound consistency between nano-scientific phenomena and her artistic practice allows her to work within an invisible realm outside the register of human senses and to bring reality closer to our own experience — a practice to which she has always been comm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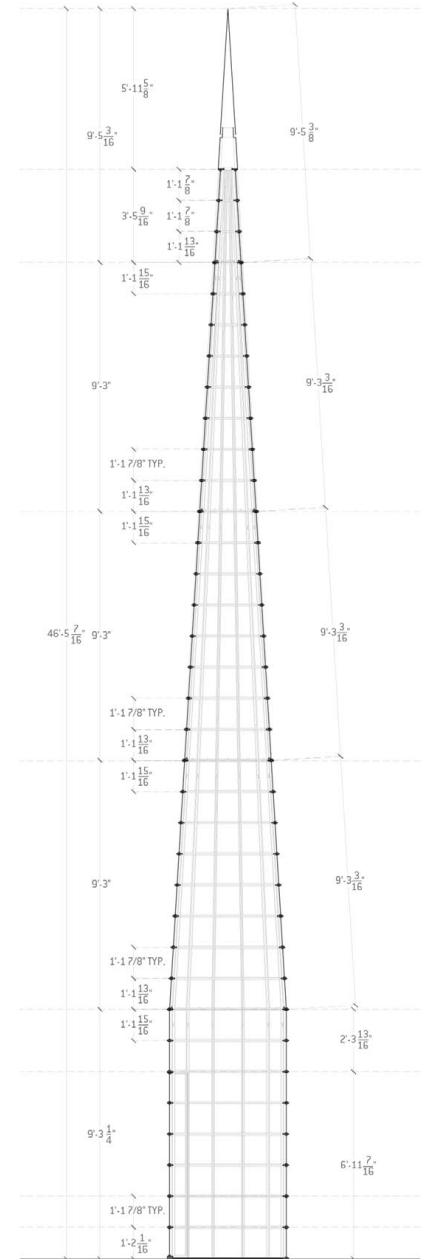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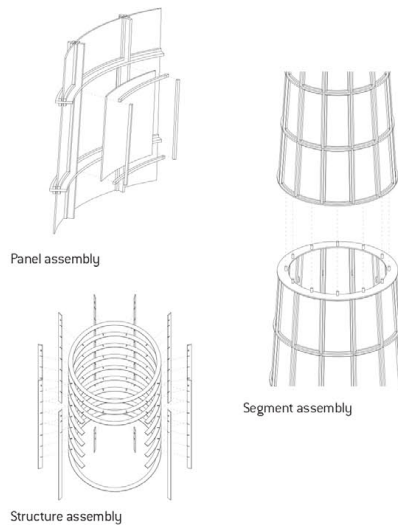
'Interconnected to observations in art-making,' she says, 'nano-techniques are an inverse expression of our perspective of the universe [cosmology]'. The former constantly sharpens our gaze towards a single point, infinitely dividing and redefining space almost to the point of eliminating interiority, while the latter moves toward the limits of exterior space, beyond geometric imagination. Architecture, whose purpose includes the preservation of interiority through geometry, frames this vast scope of space at a scale conducive to a direct bodily experience. To this end, the physical form of the pavilion has little relevance as a sculptural object, but rises out of a necessity of finding an instrument to bridge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he form of a needle is not without its own architectural history. The Egyptian obelisk, for example, functioned as a religious axis between man and the cosmos for many centuries. Some known as 'Cleopatra's Needles', these sacred structures embody early Egyptian creation myths that explained the rising and setting of the sun — the solar cycle —

through the metaphor of birth and consummation of life closely associated with solar deities, namely the sun god Ra. As such, light and time had already emerged as symbolic channels between man and celestial order in the shape of a needle.

In effect, it is neither the nanomaterial, the architecture nor the artistic intention that reveals the invisible, but the subtle yet perpetual cosmic motion reflected in the change of light. Material seizes such an instance. The molecular structure on the skin of the pavilion physically unwraps light, enabling a person's gaze to weave through the undulating depths of visual surface — a phenomenon perfectly mirroring the dynamic reciprocity between the standing figure and the gazing subject in the artist's video work. The 'needle', in turn, anchored perpendicular to the ground, parallels our bodies and emerges as an object of non-violence. A stream of consciousness that once took the form of a brushstroke on the surface of a canvas is abstracted over the years in Kimsooja's practice as first a needle, then a body, a camera lens, and finally a luminous void. A gaze is all that remains.

More than a symbol of, or a testament to, the confluence of art and science,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opens the ontological dimension between our fleeting existence and the cosmos by rendering all of our gaze — an emphatic gesture of human subjectivity — instrumental to the relational structure between distance, time, matter, and memory: a void at the tip of a needle point.



Section, The 14m high and 1.3m diameter custom-fabricated steel structure is fleshed out with transparent acrylic panels.



photographed by Aaron Wax

작가 **김수자**는 뉴욕과 파리,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학제적 개념 예술가이다. 그의 작업은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를 넘나들며 가장 첨예한 회화적 질문으로부터 예술과 삶의 조건들을 연계하여 다루어 왔고 이 시대를 치열하게 직면해 왔다. 구겐하임 빌바오(2015),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2013), 뱅쿠버 아트 갤러리(2013), 국제 갤러리(2012), 뉴욕PS1/현대미술관(2001)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30여 회의 주요 국제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에 참여했다.

작가·글쓴이 **정재호**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다. 쿠퍼 유니온에서 건축사,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콩대학교에서 강의한 바 있으며 피터 아이젠만 아키텍츠에서 건축사로 일하며 이태리 밀라노의 피네르바 콘도미니움 디자인 등에 참여했다. 그는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를 디자인, 공동 제작했으며 '실의 제적' 비디오 작업을 포함한 다수의 장소특정적 설치작업을 통해 김수자와 협업해 왔다.

The artist **Kimsooja** is a Korean born multi-disciplinary conceptual artist who lives and works in New York, Paris and Seoul. Her work combines performance, video and installation, addressing issues of painting and the displaced self. Taking us on her journey, Kimsooja's work is an invitation to question our existence, and the major challenges we are facing in this era. Her solo exhibitions include Guggenheim Bilbao (2015); The Korea Pavilion, Venice Biennale (2013); a thirty year survey exhibition at the Vancouver Art Gallery (2013); Kukje Gallery (2012); Kunsthal Vienna (2001); P.S.1/MOMA (2001) and she has also participated in more than thirty international biennales and triennals.

The artist/writer **Jaeho Chong** is an independent New York based architect.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Architecture from the Cooper Union in 2009 and his Master of Architecture from Yale University in 2013. He has taught at the Hong Kong University and practiced at Eisenman Architects, where he was a designer for the Pinerba Condominium in Milan, Italy. He is the architect and designer of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and has worked with Kimsooja on a number of site-specific installations and photographic projects, most recently on her film, *Thread Routes*.



# SPACE

**FEATURE** 서울의 새로운 청사진 혹은 또 다른 프로파간다

**FRAME** 모순과 경계의 탐독: 김승희

**REPORT** 파빌리온의 진화: DDP키오스크, 모세시앙 앤 파트너스: 혼합, 이종교배 그리고 협력

**PROJECT** 공원집

**CRITIQUE** 잔디마당 주택, 정읍 송곡전가

**SERIES** 한국현대건축평전 ver.2: 어떤 맥락

**IMAGINEER** 〈매스터피스 건축하기 전/후〉, A Needle Woman: Galaxy was a Memory, Earth is a Souvenir

